

전주시민 위한 '다락' 음악회

사단법인 더문화, 25일 문화공간이룸서 신미정 피아니스트·베이스바리톤 안민수 공연

사단법인 더문화(대표 이윤정)가 선보이는 '다락(多樂)' 콘서트가 25일, 저녁 7시 30분에 전주 효자동 문화공간이룸에서 열린다.

지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순간을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번 음악회는 전주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소중한 여유와 감동을 선사하고자 사단법인 더문화가 기획하고 전주시가 후원한다.

세계적 명성 음악가들의 라이브무대가 될 '다락' 콘서트는 신미정 피아니스트와 베이스바리톤 안민수의 환상적인 연주로 꼭 찬 음악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바둑의 멤버로 이미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피아니스트 신미정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연주와 JTBC 팬텀싱어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일린 안민수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청중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전달할 것이다.

이 음악회에서는 여러 장르의 음악으로 조화된 공연으로 R. Schumann의 Dichterliebe Op.48, Kinderszenen Op.15과 G. Caccini의 Amarilli, mia bella, F. Tosti의 Tormento Tristezza, J. Brahms의 Intermezzo in A major Op.118 No.2, S. Sondheim의 Send in the clowns, Ennio Morricone의 Playing love, 그리고 윤하준의 미중, 나 하나 꽃 피어 같은 다양



'다락(多樂)' 콘서트 포스터

한 곡들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이 곡들은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음악을 조화롭게 어우르며,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윤정 대표는 "다락" 음악회를 통해 지

역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소중한 여유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또한,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의 발전과 세계 문화 교류에 일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락' 음악회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의 향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음악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공감을 나누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일상의 스트레스와 지친 마음을 음악을 통해 해소할 기회가 되어 관객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힐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 명성의 아티스트 초청 연주를 통해 지역 문화의 발전과 홍보와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관심을 모으고, 지역의 문화적 활동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연예약을 네이버 예매를 통해서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 티켓 구매 또한 가능하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예약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94833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063-223-5323)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을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전북지식살롱 10회차 마이펫플러스 임장미 대표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3일 오후 7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전북지식살롱' 10회차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마이펫플러스 임장미 대표가 'K-컬처를 책임진 글로벌 디렉터, 이번 K-반려동물이다!' 라는 주제로 참여자들과 소통한다.

이번 전북지식살롱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진행했던 한국 홍보활동과 문화, 의료, 뷰티 등 다양한 분야를 관광 상품화 시켰던 경험을 이야기 한다. 이를 토대로 전북을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홍보하면 좋을지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임 대표는 한류 코디네이터로 시작해 지난 20년 간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등 여러 단체들과 각종 한국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한류 이벤트를 진행, 2010년 후반부터는 OTT 콘텐츠 제작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는 (주)마이펫씨앤제이의 대표로, 반려동물을 위한 플랫폼 '마이펫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구조단체와의 협업으로 '안고 가게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다홍이아빠 '박수홍' 등과 함께 대국민 후원(임양 및 기부 등)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반 여행 및 관



광 콘텐츠에 관심있는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https://naver.me/FxX5S2Mu> 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호응'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김은희)이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인 '박물관, 지역 속으로'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박물관에 따르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4일 임실기림초등학교와 8월 16일 임실마안초등학교를 찾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록문화해설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박물관의 대표 기록문화유산인 교문서 가운데 조선시대 교지, 매매문서, 호구단자 등을 복제해 선보이고, 전문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도슨트' 시간을 통해 교문서가 갖는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선현들의 삶의 모습을 탐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학습 효과 증대를 위한 내반의 옛 책 만들기 심화과정은 운영해 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 밖에도 능화관찍기, 목판 찍기, 시전지문양 찍기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임실기림초 관계자는 "학교에 작은 박물관이 생긴 것 같다"며 "찾아가는 박물관을 통해 학생들이 전시, 교육,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은희 관장은 "전북대학교박물관은 지역사회 학생들의 교과 외 활동 및 인문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내 문화교육의 수혜층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사회적기업 들레,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 24일 개최

정읍시 사회적기업 들레(이사장 안수용)의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이 오는 24일 오후 7시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진행된다.

2023년 공연은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인생살이를 콘셉트로 진행되며, 8월에는 '동

행'을 주제로 열린다.

'농담' 사전에 게스트를 공지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관람해야지만 알 수 있는 정읍만의 독특한 콘셉트와 매력으로 시민들에게 공감 증과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국악인 오정해가 소리꾼으로 진행을 맡아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번 '농담' 공연의 티켓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들레 홈페이지(dulle.or.kr)와 SNS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문화도시 사업단(063-536-2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경 기자

대표 무형유산 종합축제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축전' 개최... 공연·전시·체험 등 풍성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해 9월 1~10일까지 9일간 '2023 무형유산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4일은 휴관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채택한 국제 협약이다.

이에 따르면 '2023 무형유산축전'은 지난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승'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 무형유산 종합 축제다.

먼저, 9월 1일 개최되는 개막행사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40여 보유자(단체)에 대통령 명의 증서를 최초로 수여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통령증서 수여식'과,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전

승자와 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유공자 포상식'이 진행된다.

개막공연으로는 인류무형유산 탈춤 고성오광대 보존회와 현대적인 탈춤 연행자들이 어우러지는 전통연희 판놀음 '모던연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전 첫째 주부터 전시·미디어아트·공연·기능·영화·학술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6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축전의 둘째 주인 9월 5일부터는 공연 및 체험 중심의 행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2023 무형유산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안정적인 전승과 발전적인 창작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